

업무분야

법무법인(유한) 바른 영업비밀보호팀은 국내외적으로 보호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후단계의 분쟁해결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주요구성원



장선



정영훈



최진혁

주요업무분야

-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각종 컨설팅
- 영업비밀침해소송
-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
- 전직금지가처분
- 관련 형사사건
- 영업비밀침해 관련 자문(포렌식 관련 자문 포함) 등

대표사례

-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인 J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- 국내 최대의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 개발 ·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
-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사건
-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(혐의없음)을 받은 사례

최근업무사례

[영업비밀호보] 오랜 분쟁으로 '영업비밀의 보호기간'이 주요 쟁점이 된 사안에서 영업비밀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

[지식재산]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,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

[지식재산] 은밀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밝히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

[영업비밀]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

[지적재산권]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
[영업비밀]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 · 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

[영업비밀] ‘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’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‘전(前) 직원들’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여, 전 직원 4명 모두 2년 실형(법정구속) 유죄 판결 받은 사건

[지식재산]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

[지식재산]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‘기술적 표장’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
[지식재산]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

[영업비밀] 위법한 압수·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

[지식재산]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